

“자연친화 도시재생·미래산업 육성 총력”

민선 6기 후반기 새 설계
최영호 남구청장



최영호 광주시 남구청장은 14일 “사람과 기업,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해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남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고 참여와 소통 중심의 생활자치를 구현하고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창조도시를 목표로 달려가겠다”며 민선 6기 후반기 구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년여간 광주전남혁신도시의 배후지역인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에 들어서기로 한 에너지 벨리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확정, 남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주월동 통합거점 경로당 및 월산 건강생활센터 건립 등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최 청장은 “계획대로라면, 압촌동과 지석동 일원에는 한전과 관계한 다수의 에너지 기업이 입주하고 각종 교육·연구시설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게 된다”면서 “에너지 벨리 조성사업은 내년 11월부터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올 9월부터는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특히 민선 6기 들어 추진 중인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는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낙후된 광주·전남이 상생발전하고 수도권과 영남 등 타지역과 비교해 도 열악한 우리 호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지난 5월에 열린 ‘광주전남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친수구역 개발사업 심포지엄’에서 학계, 경제계 등 많은 관계자가 남구가 추진 중인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영산강 승촌보 주변에 10년간 4조원을 투입, 10㎞(300만평)규모의 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레저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광주전남은 항상 뒤처지지만 할 것인가. 또 무작정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전체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백운광장 주변을 개발해 대형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백운광장 인근 옛 보훈병원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유스퀘어, 영화관, 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복합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한국도지주택공사와 함께 오는 2017년 말까지 호천1지구에 광주 최대 규모인 5만6000평가량의 ‘푸른 커뮤니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월산 근린공원 2만2600평 부지에 국비와 시비 등 50억원을 투입해 생태숲을 갖춘 자연마당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는, 유통 대기업 소유의 대형마트를 통해 지역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지역사회의 생산과 소비, 재투자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역경제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통합중간 지원조직인 지역경제 순환센터를 건립국제테니스장 내에 건립하고 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공사를 추진해 내년 1월에는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전통시장 시절 및 경영 현대화 사업도 지속 추진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광주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한 근대문화유산의 보고(寶庫) ‘양림동’에는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 ‘한 번 오면 꼭 다시 찾고 싶은 양림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최 청장은 “낙동강에는 5조 원짜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다”면서 “광주시, 전남도와

내용으로 하지만, 일각에선 조성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 파괴 우려도 제기됐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낙후된 광주·전남이 상생발전하고 수도권과 영남 등 타지역과 비교해 도 열악한 우리 호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지난 5월에 열린 ‘광주전남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친수구역 개발사업 심포지엄’에서 학계, 경제계 등 많은 관계자가 남구가 추진 중인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영산강 승촌보 주변에 10년간 4조원을 투입, 10㎞(300만평)규모의 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레저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등하굣길도 지하철이 좋아요”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최근 광주 북구 일동중학교에서 ‘고(Go)! 고(高)! 릴레이’를 열고 문화공연과 메트로 골든벨 퀴즈, 에너지절약 연극 등을 펼쳤다. ‘고고릴레이’는 도시철도 2호선 예정지 내 학교·단체를 직접 찾아가 도시철도의 장점을 알리며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청소년대상 문화이벤트다.

《도시철도공사 제공》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광주전남은 항상 뒤처지지만 할 것인가. 또 무작정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전체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백운광장 주변을 개발해 대형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백운광장 인근 옛 보훈병원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유스퀘어, 영화관, 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복합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한국도지주택공사와 함께 오는 2017년 말까지 호천1지구에 광주 최대 규모인 5만6000평가량의 ‘푸른 커뮤니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월산 근린공원 2만2600평 부지에 국비와 시비 등 50억원을 투입해 생태숲을 갖춘 자연마당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는, 유통 대기업 소유의 대형마트를 통해 지역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지역사회의 생산과 소비, 재투자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역경제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통합중간 지원조직인 지역경제 순환센터를 건립국제테니스장 내에 건립하고 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공사를 추진해 내년 1월에는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전통시장 시절 및 경영 현대화 사업도 지속 추진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광주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한 근대문화유산의 보고(寶庫) ‘양림동’에는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 ‘한 번 오면 꼭 다시 찾고 싶은 양림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최 청장은 “낙동강에는 5조 원짜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다”면서 “광주시, 전남도와

내용으로 하지만, 일각에선 조성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 파괴 우려도 제기됐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낙후된 광주·전남이 상생발전하고 수도권과 영남 등 타지역과 비교해 도 열악한 우리 호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지난 5월에 열린 ‘광주전남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친수구역 개발사업 심포지엄’에서 학계, 경제계 등 많은 관계자가 남구가 추진 중인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영산강 승촌보 주변에 10년간 4조원을 투입, 10㎞(300만평)규모의 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레저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등하굣길도 지하철이 좋아요”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최근 광주 북구 일동중학교에서 ‘고(Go)! 고(高)! 릴레이’를 열고 문화공연과 메트로 골든벨 퀴즈, 에너지절약 연극 등을 펼쳤다. ‘고고릴레이’는 도시철도 2호선 예정지 내 학교·단체를 직접 찾아가 도시철도의 장점을 알리며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청소년대상 문화이벤트다.

《도시철도공사 제공》

광주시, 수소산업 중심도시 만들기 박차

기업·대학과 추진 중간 보고회

광주를 수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추진된다.

광주 수소 허브도시 추진에 대한 중간 보고회가 지난 13일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전남본부(원장 김병수, 본부장 이천환)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대, 조선대, 세방전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수소 사회를 대비하는 광주시의 발전 방향과 역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육성방법 도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따른 육성전략에 대해서 주로 논의됐다.

수소사회 중심지로의 육성과 창조적 청정 문화도시 구현을 통하여 향후 10년 내에 수소산업 중심위치를 확보함으로써 광주시의 미래 청정 수소에너지 글로벌 중심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광주시가 수소 허브도시가 되기 위한 여건 분석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확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면 수소 자동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유기호 센터장은 “정부의 수소차 육성정책과 보조를 맞추며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 셰어링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고 사업 내용을 확장시키면 좀더 빠르게 수소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과학기술원 홍성안 교수는 “광주시 중심으로 육성된 수소산업이 범국가적으로 성과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주변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광주시의 좋은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육성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수소산업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을 확보하고, 창조혁신센터와 연계한 벤처기업 육성 및 글로벌 강소기업을 확보, 민간투자 확대 및 MICE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쾌적·청정 에너지 도시 및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직장맘지원센터 19일 유인경씨 초청 특강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본부장 김진수) 직장맘지원센터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본부 3층 대강당에서 방송인 유인경(사진)씨를 초청해 ‘직장맘’을 위한 특강을 연다.



유인경씨는 방송인 유씨는 이날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직장맘과 가정일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어린이 숲 체험원 올해 3곳 추가 조성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다양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아 숲 체험원 3곳과 시립수목원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어린이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 숲 체험원 3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 휴식공간이 될 시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에도 들어간다.

유아 숲 체험원은 유아들의 숲 속 놀이와 생태학습을 위해 야외 체험 학습장, 비·바람을 피하는 대피시설, 안전·휴게시설 등을 갖춘다.

지난해 ▲남구 사직공원 ▲서구 금당산 ▲남구 풀빛 근린공원 ▲북구 문화근린공원 ▲광산구 경암 근린공원 등 5곳에 이어 올해는 ▲서구 서창동 학산사 인근 ▲남구 압촌동 제봉산 ▲광산구 신

창동 생태 근린공원에 조성한다.

지난해 조성한 곳에는 유아 숲 지도사와 숲 해설가를 배치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아 숲 체험원 등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시 숲 조성 사업 중 하나다.

시립수목원은 남구 양과동 일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조성된다. 생태관찰, 식물원, 우량수목 증식 등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 축소된 면적으로 변경 지정돼 그동안 76% 정도 토지를 매입했다.

이달 안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평택 토지 매매

★ 삼성전자 120평 ★
LG 3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개발 부지 ★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승탄역 5분 (승복시장)
토지 184평
오피스텔 65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15억 발생

▶ 매가 12억

★ 개발 부지 ★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승탄역 2분
토지 359평
오피스텔 207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37억 발생

▶ 매가 30억

① 평택시 고덕면 방촌리 (고덕 교차로 7분)
120평 (평당 200만)
▶ 매가 2억 4천만

②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옆)
922평 (평당 30만)
▶ 매가 1억 4천 760만

③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5분)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 8천 235만

[주]대신건설 시행개발 전문

010-6670-9800

010-7384-7800

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신축 상가원룸/3면 대리석 시공/코너자리

1층 (커피숍)

2층~3층 (원룸 6개, 투룸2개)

4층 (주택) 30평

화장실2개, 방3개, 다용도실

★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5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1억5천)

062-511-7800

010-6832-9700